로켓배송 입점하면 대만 진출… 소상공인, 157조 판로 활짝

쿠팡, 중소상공인 대만 진출 설명회

"제품관리부터 빠른 배송, 고객응대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쿠팡의 새로운 '윈스톱' 수출 모델로 157조원에 이르는 대만 유통시장으로 판로를 넓힐 가능성이 열렸다."

경제성장 위축, 포화상태의 국내 시장, 중국 경기 둔화 등 국내외 성장 판로가 막힌 전국 중소상공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온라인 쇼핑 성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쿠팡은 지난 1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쿠팡과 함께하는 중소상공인 대만 진출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유통센터·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참가신청을 한 전국 중소상공인과 지자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쿠팡의 대만 진출 설명회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한 '제3차 범부처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쿠팡이 자율규제 추진 계획 중 하나로 소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의 일환이다.

설명회에선 먼저 쿠팡의 해외 사업 담당자들이 대만 시장 분석, 쿠팡의 '대만 로켓배송'과 '로켓직구' 서비스, 쿠팡의 대만 진출 프로세스와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2300만여명이 거주하는 대만의 인구 밀도는 1㎢당 673명으로 한국(515명)보다 높다. 유로모니터 등에 따르면 대만 유통시장 규모(소매판매액)는 지난해 3조6344억 대만달러(약 157조원)에 이른다. 대만의 2022년 온라인 쇼핑거래 규모는 지난 2017년 대비 2배로 커졌지만, 전체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3%로 낮았다. 앞으로 온라인 쇼핑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쿠팡 수출팀 고재헌 부장이 지난 18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진행된 '쿠팡과 함께하는 중소상공인 대만 진출 사업설명회'에서 대만 진출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쿠팡

17개 지차체 등서 200여명 참석
현지 온라인쇼핑 거래 14% 불과
진출 상품중 소상공인 판매 70%

'쿠팡앱' 대만 쇼핑앱 다운로드 1위
판매사 '내아이애' 올 매출 10배↑

쿠팡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만 시장에 지난해 10월부터 로켓직구와 로켓배송을 선보였다. 빠른 배송·합리적인 가격·다양한 셀렉션을 내건 쿠팡 앱은 진출 6개월 만에 대만 현지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쇼핑 앱 1위로 등극했다.

김진국 쿠팡 상무는 "대만에 나간 수백만개 상품 가운데 소상공인 판매자 비중이 70%에 이른다"며 "식품·뷰티 등 다양한 분야 중소상공인들의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유기농 쌀과자업체 '내아이애'는 지난해와 비교해 판매액이 10배 늘었고, 올들어서만 쌀과자 4만 세트가 팔렸다. 뷰티업체 '방앗간화장품'도 대만 로켓배송 판매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해 현재 50% 늘어났고 수출팀 포함 직원 12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날 중소상공인들은 쿠팡의 발표 후 수출 상담을 받았다.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향후 수출 심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중소상공인들이 가장 뜨거운 호응을 보인 것은 쿠팡의 '윈스톱 수출' 모델이었다. 쿠팡은 대만에 진출할 때 물류, 통관, 번역, 고객서비스, 마케팅을 모두 도맡으며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쿠팡 수출팀 고재헌 부장은 "그동안 중소상공인들은 '직수출'을 위해 통관부터 상품 보관, 상품 페이지 번역, 마케팅과 택배배송, 고객 응대를 모두 도맡는 부담이 컸지만, 쿠팡은 로켓 입점만으로 중소상공인이 대만에 진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중소상공인 사이에선 경기침체와 중국 수출 둔화 등 악재 속에 쿠팡의 대만 로켓직구·로켓배송 모델은 별도의 현지 인력 채용·법인 설립·바이어 설득 같은 부담이 없는 신성장 수출 모델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건강즙 업체 유기농마루의 김상범 대표는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 채널은 판로 확대가 제한적이어서 답은 해외 수출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은 것 같아 뿌듯하다"고 했다.

건강식품업체 비아젠의 정성훈 대표는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오픈마켓 업체 등에 진출하고 싶어도 별도 수출 전담 인력을 둬야 한다"며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쿠팡의 윈스톱 수출 모델은 혁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대만 로켓배송·로켓직구는 한국의 중소상공인들이 해외 진출의 장벽을 뛰어넘어 해외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 확신한다"며 "쿠팡의 대만 진출이 국내 중소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K열풍의 새로운 진원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올리브영 '모바일 선물' 이용 4050세대 급증

서비스 성장율 연평균 176% 달해
상반기 40대 이상 주문액 18배 급증

CJ올리브영이 지난 2020년 도입한 '올리브영 선물하기' 서비스가 지난해까지 연평균 176%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4050세대의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다.

올리브영은 올해 상반기 모바일 선물하기 주문을 분석한 결과, 40대 이상 회원이 주문한 금액이 지난 2020년 대비 18배 늘어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연령대의 주문금액 신장률을 상회하는 수치다. 핵심 고객인 MZ세대의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4050의 선물 구매가 크게 늘며 이용 연령대가 확장하는 추세다.

아울러 올해 선물하기 주문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프리미엄 화장품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특히 '아임비타 멀티비타민 이뮨샷', '프레스샤 올인원 토탈 영양 앰플' 등 국내 기업들이 생산한 샷 형태의 비타민이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모로칸오일 ▲헤라 ▲에스티로더 등 비교적 고가의 프리미엄 브랜드 화장품들을 많이 주문했다.

무엇보다 연령대별로는 선물하기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2030의 경우 중소기업 브랜드 상품을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는 개성이 강한 콜라보 상품이나 인디 브랜드의 가벼운 색조 화장품을, 4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브랜드 이름값이 확실한 프리미엄 화장품과 건강식품 선물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올리브영은 오는 30일까지 공식 온라인몰과 모바일 앱에서 추석 기프트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다. ▲건강 ▲뷰티 ▲센스 ▲스몰럭셔리 등을 키워드로 선물에 적합한 250여 종의 추천 상품을 선별해 제안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광동제약, 한정판 '더 헤리티지 광동 쌍화'

쌍화 침향환·녹용 쌍화정 등 구성

광동제약은 '더 헤리티지 광동 쌍화'를 한정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더 헤리티지 광동 쌍화는 오랜 시간 사랑 받아 온 광동제약 쌍화음료의 브랜드 가치를 계승한 한정판 프리미엄 제품이다. 이번에 출시된 한정판 제품은 침향에 녹용, 쌍화 농축액 분말과 엄선된 14가지 국산 원료를 넣은 '쌍화 침향환', 광동의 노하우가 담긴 쌍화 원료에 청정 뉴질랜드산 최상위 SAT 등급 녹용의 발효농축액, 6년근 인삼 농축액을 배합한 '녹용 쌍화정', 9가지 원료로 진한 쌍화 맛을 그대로 구현한 '쌍화티백'으로 구성됐다.

광동제약 '더 헤리티지 광동 쌍화'

여기에 전통 자기 브랜드 광주요와 컬래버레이션한 '광주요 미각 설백 복주머니형 2인 다관세트', 서울무형문화재 손대현 장인이 직접 디자인한 '귀갑문 약수저'를 더해 음용 시 품격을 높였다.

더 헤리티지 광동 쌍화는 고급스러운 2단 목합에 각 제품을 정성스레 담아 전통원료인 쌍화에 대한 자부심과 프리미엄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총 300세트가 한정 판매되며, 현대백화점 일부 매장 식품관과 광동제약 F&B 전용몰 광동상회에서 구매 가능하다. /이세경 기자 seilee@

청정원, 헬시플레저 신제품 3종 출시

그레인보우 닭가슴살·단호박·소고기

대상 청정원이 소비자들이 건강을 즐겁게 관리하려는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청정원은 신제품 ▲그레인보우 닭가슴살 ▲그레인보우 단호박 ▲그레인보우 소고기 등 총 3종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청정원 '그레인보우(GRAINBOW)'는 귀리, 렌틸콩, 퀴노아 등 다양한 잡곡과 고기, 채소 등 원재료를 담아낸 제품이다. '그레인보우'라는 이름도 '잡곡(GRAIN)'과 '무지개(RAINBOW)'의 합성어다.

그레인보우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간편하게 건강한 한 끼를 챙길 수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재료를 일일이 준비할 필요 없이 전자레인지에 단 4분만 조리하면 한 끼 식사가 완성된다. 아울러 3대 필수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균형있게 갖췄다. /이청하 기자

CJ올리브네트웍스 'CJ ONE' 메가MGC커피와 맞손

CJ올리브네트웍스가 운영하는 CJ ONE이 메가MGC커피와 손을 잡고 회원들의 일상 속 혜택 강화에 나섰다.

CJ올리브네트웍스가 지난 18일 메가MGC커피와 온·오프라인 마케팅, 멤버십 제휴, 시스템 협력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이번 달 초 CJ ONE은 13년 만에 브랜드 리뉴얼을 단행하며 '빈짝이는 일상(Everyday Sparkle)'이라는 슬로건을 선정하고 멤버십 포인트 등을 새롭게 보였다. /이청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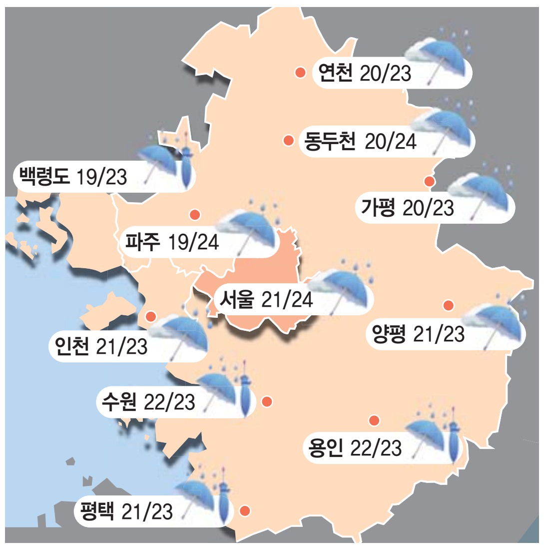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6:18 | 해짐 / 18:33

9월 20일(水)
음력 : 8월 6일

수도권 날씨
21~24℃

운동 지수	4/10
빨래 지수	4/10
세차 지수	2/10
외출 지수	5/1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